

# 보험업계, 저출산 시대에도 '어린이보험' 판 키운다

연령별 보장 범위 확대 등으로 '2차보험 가입' 파생효과 기대

KB손보, 금쪽같은 건강보험 건강고지 할인·가입연령 확대 미래에셋 'M-케어 0세부터' 0~30세 가입, 통지의무 없애



첫 지피티가 생성한 보험업계 어린이보험 출시 이미지.

보험업계가 어린이보험을 속속 선보이고 있다. 연령별 보장 범위를 확대해 발생할 파생효과를 기대해선다.

1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KB손해보험은 'KB 5.10.10 금쪽같은 건강보험'을 최근 선보였다. 기존 'KB 5.10.10 플러스 건강보험'의 핵심 특징인 건강고지 할인을 저연령까지 확대 적용했다.

금쪽같은 건강보험은 5~40세까지 가입 가능한 어른이(어른+어린이)보험이다. 가입 연령 확대에 따라 건강고지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없었던 15세 미만의 건강한 고객도 건강상태에 따라 합리적인 보험료로 가입할 수 있다.

KB손해보험 관계자는 "지난 2023년 출시해 꾸준한 사랑을 받아온 건강고지형 상품 라인업을 어린이 보험으로 확장해 이번 KB 5.10.10 금쪽같은 건강보험을 새롭게 선보이게 됐다"고 전했다.

미래에셋생명도 어린이 건강·상해 보험 라인업을 강화했다. 'M-케어 0세부터 건강보험(무)'을 출시해 전 연령대 별 건강·상해 보험 라인업을 완성하고

손해보험 중심의 어린이 건강보험 시장 공략에 나선다.

해당 상품은 0~30세까지 가입이 가능하다. 특히 손해보험 상품과 달리 피보험자의 위험 변동(직업, 취미 등) 시 보험사에 바로 알려야 하는 통지의무가 없다.

통지의무가 없으므로 가입 후에도 보험금 감액, 지급 거절 등의 불이익 없이 안심하고 보장을 유지할 수 있다.

또한 암, 뇌혈관질환, 심혈관질환 등 주요 질병에 대한 평생(종신) 보장을 저렴한 보험료로 준비할 수 있다.

미래에셋생명 관계자는 "해당 상품은 보험과 친하지 않은 어린이들이 평생의 건강한 삶을 위해 꼭 필요한 보장을 설계할 수 있는 상품"이라고 설명했다.

카카오페이손해보험은 지난달 6~15세 초·중학생 전용 보험상품을 선보였다. 초중학생보험은 지난 5월 출시한 영유아보험 이후 카카오페이손해보험이 두번째로 선보이는 장기보험 상품이다.

카카오페이손해보험은 생애주기별로 주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이 다르다는 점에 주목했다. 초등학교부터 중학교까지의 성장단계에서 필수적인 보장만 직접 골라 담을 수 있는 DIY(Do It Yourself)형 상품으로 설계했다.

특히 카카오페이손해보험은 디지털 보험에 친숙한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영유아보험 및 어린이보험으로 장기보험 상품을 먼저 출시했다. 디지털 보험사로

서 카카오톡과 카카오페이 앱 등을 통해 디지털에 익숙한 어린 연령대를 우선적으로 공략하겠다는 계획이다.

카카오페이손해보험 관계자는 "해당 상품은 태아부터 청년기까지 넓은 연령대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기존 어린이 종합보험과 차별성을 갖는다"며 "자연히 카카오톡, 카카오페이를 주로 사용하고 디지털 보험에 친숙한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상품을 먼저 출시했다"고 설명했다.

저출생·고령화 등 적은 수요에도 불구하고 보험사들이 어린이보험을 속속 선보이는 요인에 대해 업계는 파생효과를 꼽았다. 어린이보험 가입에 따라 파생되는 2차적인 보험 가입 수요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판단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이전 보험보다 더 싸고 더 나은 보장들이 나오에 따라 부족한 보장을 추가하는 업셀링이나 새롭게 다시 가입하는 리모델링 수요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주형 기자 gh471@metroseoul.co.kr

# 대출규제에 전세값 상승 둔화... 아파트 쏠림은 여전

첫째주 서울 아파트 전세 0.15% ↑ 전주 0.17% 대비 상승폭은 축소

서울의 아파트 전세 가격이 무려 68주 연속으로 오른 가운데 하반기에는 어떻게 움직일 지 시장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성수기인 가을 이사철을 앞두고 있지만 전세 매물은 찾아보기 힘들고, 은행의 전세대출 규제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11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서울 아

파트 전세가격은 올해 들어 지난주까지 누적 기준 4.05% 올랐다. 전국 상승률(1.35%)을 크게 웃돈다.

주간 기준으로 9월 첫 주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은 0.15% 올라 상승세는 이어갔지만 전주 0.17% 대비 상승폭은 축소됐다.

여름철 비수였는데다 금융당국과 시중은행들이 가계대출 조이기에 나서면서 상승세가 둔화됐다.

박세라 신영증권 연구원은 "전방위

적 대출 수요 규제로 매매가격은 바로 되돌려지는 모습이지만 실수요를 반영하는 전세가격은 공급물량이나 빌라 회피 등 실물 시장에서의 변화가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시중금리가 인상된 여파로 전세가격 역시 상승률은 둔화됐지만 빌라 기피는 여전하고, 아파트의 수요 쏠림도 지속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기존 아파트의 전세 물량은 줄었지만 하반기에만 입주하는 물량이 1만

3000세대가 넘는다.

당장 이달 송파구에서 '힐스테이트e 편한세상문정'(1265세대 규모)이 입주를 시작하고, 오는 11월에는 강동구 '올림픽파크프로에온'(1만2032세대)이 들어온다. 강동구의 경우 전세가격은 올해 들어 0.59% 오르는데 그쳐 서울에서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 중이다.

내년에는 동북권에서의 2만5000세대에 달하는 입주 물량이 예정되어 있다. 동대문구에서 '래미안 라그란데'와

'이문아이파크자이'가 각각 3069세대, 4321세대 규모며, 성북구의 '왕위자이 레디언트'도 2840세대가 입주를 시작한다.

박 연구원은 "아파트에 대한 선호도 쏠림과 통화정책 피벗(방향전환)에 따른 수요 상승 요인과 입주물량 소화라는 공급 요인에서 가격 향방이 결정될 것"이라며 "매매 심리가 축소되면 다시 전세수요가 증가할 수 있다는 점, 공급물량 해소 이후 공급 위축에 대한 불안감 등이 시차를 두고 전세가격에 영향을 주면서 전세가격이 강보합 양상을 보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안상미 기자 smahn1@

WATV.ORG
하나님의교회 설립 60년 1964-2024

하나님의 교회는 국가와 사회 안보를 위해 긴급구호, 환경보호, 소외이웃 지원 등 지원 등 약 2만9000회 봉사를 이어나며 세계 각국에서 4700회 넘게 상을 받았다.

## 하나님의교회 세계복음선교협회 페루 국회훈장 수훈

### 단체부문 최고 훈격, 종교단체 최초

대한민국을 넘어 전 세계에서 보내주시는 격려와 응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175개국 7800여 지역 하나님의 교회 370만 성도들은 온 인류를 가족으로 품으시는 아버지 하나님과 어머니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희망의 내일을 열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의교회 세계복음선교협회의 지역사회에 대한 탁월한 사회공헌과 자원봉사 활동을 인정하여 국회훈장 '코멘다도르(Comendador, 단체 최고상)' 등급을 수여합니다.”  
-알레안드로 소토 레예스 페루 국회의장 겸 훈장 심의위원장

사진설명. 하나님의 교회 총회장 김주철 목사가 7월 페루 국회의사당에서 국회의장으로부터 훈장을 수훈했다(가운데 사진). 맨 왼쪽부터 영국 여왕 자원봉사상, 대한민국 3대 정부 대통령상, 페루 국회훈장, 브라질 입법공로훈장, 미국 바이든·트럼프·오바마 대통령 자원봉사상.

하나님의교회 세계복음선교협회  
WORLD MISSION SOCIETY CHURCH OF GOD